

# 'MB버킷크라샤' 골재·건설폐기물 분쇄 혁명



■이탈리아 MB사는 어떤 회사인가.  
2001년에 Breganze라

고 불리는 Vincenza의 작은 마을에서 MB S.p.A.는 설립되었다.

MB는 곧 전세계적으로 제품들을 요청받으며 시장에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회사는 특히 포크레인을 위한 jaw action bucket crushers를 만드는 vertical specialisation를 자랑으로 내세웠다.

이러한 혁명적인 제품이 'Made in Italy' 마크를 달았다.

회사 설립자들은 이기는 선택을 했고, 발전의 시작을 만들었다.

혁신과 테크니컬적인 끊임 없는 탐구를 진행한 덕에 MB제품은 연간 매출액이 2천5십만 유로나 되는 국제적인 기업이 되었다.

MB는 지금 100여개국 이상의 나라들에 물건을 수출하고 있으며,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사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 ■MB사 가치

엔지니어링 분야에 대하여 철저한 지식과 연구개발에 대한 한결 같은 투자.

이것이 회사의 기초를 이루는 키포인트며 MB를 지금의 자리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들의 직업에 대한 투철한 장인정신은 절대적인 지지를 얻었다.

MB S.p.A의 각 제품은 혁신, 효율, 전문화, 다기능성, 안전성과 신뢰성 이러한 MB 고유의 가치에서 나온다.

현재 디자인 연구와 건축부분 테크놀

러 지에 있어서 는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예로 간주 되고 있다.

MB社에 대단한 만족감을 안겨준 것은 제네바의 Gran prix of the International Exhibition of Inventions에서 1위를 한 것이다. 이 이벤트에서 회사는 700여개 이상의 발명품과 45개국에서 온 650여개 사와 다투어 승리했다.

20년 동안 제네바 Exhibition에서 이탈리아는 1위를 선점하지 못했다.

이 수상은 MB에게 대단한 긍지를 심어주었으며, MB사를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20년 동안 제네바 Exhibition에서 이탈리아는 1위를 선점하지 못했다.

이 수상은 MB에게 대단한 긍지를 심어주었으며, MB사를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이 수상은 MB에게 대단한 긍지를 심어주었으며, MB사를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이 수상은 MB에게 대단한 긍지를 심어주었으며, MB사를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이 수상은 MB에게 대단한 긍지를 심어주었으며, MB사를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 ■MB사의 제품

MB 버킷 크라샤는 굴삭기에 장착, 유압 시스템을 이용하여 8톤 이상 굴삭기에 장착 가능하며 다양한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

발파 작업, 일반적인 건축 공사, 재건축, 굴삭기를 이용한 폐자재 처리, 토목, 도로 공사, 채석장과 광산, 환경정리 작업과 암석 파괴 작업 등 다양하다.

발파 작업, 일반적인 건축 공사, 재건축, 굴삭기를 이용한 폐자재 처리, 토목, 도로 공사, 채석장과 광산, 환경정리 작업과 암석 파괴 작업 등 다양하다.

골재 석산, 건설폐기물 현장 등 일반적으로 돌을 깨는 장비는 흔히 조크러셔 또는 콘 크러셔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기존 골재를 깨는 장비와 달리 획기적인 신선한 제품이 선보일 예정이어서 관련업계의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다름 아니라 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수입전문 업체인 (주)비엔비글로벌(대표: 허혜승)이 이탈리아 MB사로부터 한국 독점 총판계약을 맺고 굴삭기에 버킷 크라샤를 오는 29일 경기도 김포시에

서 장비시연회를 개최한다.

MB버킷크라샤는 일반 굴삭기에 장착하여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탁월한 이동성이 우수하다.

따라서 굴삭기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작업장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비엔비글로벌 허혜승 대표는 획기적으로 선보이는 골재 파쇄 장비인 'MB버킷크라샤'에 대한 성능 검증을 보여줌으로써 고객들에 대한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편집자 주>

MB 버킷 크라샤가 대규모 생산으로 이끌어 내는 다양성과 장점은 강철을 제외한 어떤 종류의 소재라도 현장에서 바로 분쇄하여 트럭에 싣거나 분류해 보다 빠른 작업을 가능하게 하고, 매립지를 거칠 필요 없이 비활성 및 건축 폐자재의 활용이 가능하여 지출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하역에 적용된 1,300 대기 압력이 추력에 의해 위턱에 도달하면 강철을 제외한 어떤 종류의 재질이든 분쇄

하지 않고 굴삭 작업, 토지 개량, 포도밭 개간, 쇠석 같은 특별한 응용분야에 효율적이다. 또한 MB의 모든 모델에 철물 분리에 대한 자선 장치도 개발했다.

MB의 자선장치는 지속적인 연구로 기업에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며 분쇄 및 비활성 소재로부터의 철물 분리 작업을 단순화 할 수 있으므로 재료의 판매를 가능케 하는 것이 목적이

다. MB사는 첨단 기술과 연구로 고객 전체에 비용 절감과 환경 보호의 혜택을 주기 위해 기존제품의 성능개선과 신제품 개발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계속 할 것이다.

MB 제품의 고능률성은 빌딩에 극한



◇28톤 이상의 포크레인에 장착사용 가능한 MB버킷 크라샤 BF-120.4

## “굴삭기에 누구나 쉽게 장착 가능한 토목·석산·건설폐기물 현장 등 다양한 활용성”

해낸다.

MB S.p.A의 버킷 크라샤는 8톤 이상 모델에 장착 가능한 4개 모델로 다양한 현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뛰어난 유연성을 지닌 버킷 크라샤는 크고 작음에 구애 받지 않고 험거 작업, 일반적인 토목 작업, 현장 소재 재활용을 가능하게 한다.

MB 제품의 고능률성은 빌딩에 극한

하지 않고 굴삭 작업, 토지 개량, 포도밭 개간, 쇠석 같은 특별한 응용분야에 효율적이다. 또한 MB의 모든 모델에 철물 분리에 대한 자선 장치도 개발했다.

MB의 자선장치는 지속적인 연구로 기업에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며 분쇄 및 비활성 소재로부터의 철물 분리 작업을 단순화 할 수 있으므로 재료의 판매를 가능케 하는 것이 목적이

다. MB사는 첨단 기술과 연구로 고객 전체에 비용 절감과 환경 보호의 혜택을 주기 위해 기존제품의 성능개선과 신제품 개발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계속 할 것이다.

(www.mbcruiser.co.kr)

인터뷰 비엔비글로벌 허혜승 대표이사



## “골재 분쇄작업의 혁명 기대”

(건설폐기물)

허혜승 대표는 국내 건설기계 수입장비에 대한 탁월한 안목을 지니고 있다. 특히, 크레인 건설기계 수입에 한계를 느끼면서 독특하고 틈새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아이템이 무엇일까 전세계를 누볐다.

그러다 이탈리아를 방문하던중 눈에 확 들어오는 건설장비를 보게 됐다.

골재를 깨는 장비는 대부분 고정식 플랜트 장비였지만 MB버킷 크라샤는 거의 굴삭기 버킷과 유사하지만 건설현장, 일반 재개발 재건축 현장, 골재 석산현장 등 어디에서는 이동이 가능하고 비용절감의 효과가 탁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래서 지난 8월 계약을 맺고 영업을 최근에 시작했다.

MB버킷크라샤는 크게 4가지 타입으로 8톤(BF 60.1), 14톤(BF 70.2), 20톤(BF 90.3), 28톤(BF 120.4) 이상 굴삭기에 장착할 수 있다고 한다.

- MB버킷크라샤를 처음 봐서 그런지 생소하다. 성능에 대해 쉽게 설명해달라.

암석 및 골재를 한번 가득 들어올려 버킷으로 잘게 깨는데 대략 2분이면 파쇄하게 된다. 정말 누구나 사용 할 수 있을 정도로 간편하다는데 장점이 있다.

또한 분쇄물의 종류, 형태 등 작업조건을 쉽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20mm 정도의 골재 및 건설폐기물을 파쇄할 수 있다.

따라서 고객 수요자들로부터 환영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MB 버킷 크라샤의 장점은 무엇인가.

BF 120.4 (28톤 이상)는 1시간 골재를 분쇄할 경우 골재 40mm 기준으로 30m³ 생산이 가능하다.

일반 굴삭기에 장착가능하기 때문에 이동성과 함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바로 그 자리에서 분쇄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덩프로 옮기고 크라샤로 분쇄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한번에 해결가능하다.

이는 건설현장은 물론 파쇄골재 현장에서 비용절감을 획기적으로 절감 가능하다고 본다.

분쇄 작업의 혁명을 불러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처음 선보이는 장비인 만큼 A/S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텐데.

굴삭기에 장착할 수 있을 만큼 구조가 간단하다. 간단한 만큼 쉽게 누구나 장착 사용가능하다.

조작이 간단하고 쉽게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구조 또한 간단해 잔고장이 많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A/S 또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고, 부속들도 복잡한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원활한 A/S가 진행될 전망이다.

- 2010년 목표는 무엇인가.

MB버킷 크라샤는 국내 처음 선보이는 만큼 건설현장, 골재현장, 건설폐기물현장 등 이 제품에 대한 홍보를 많이 알릴 계획이다. MB버킷크라샤의 성능 및 장점을 널리 알려 앞으로 꾸준한 시장확대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김덕수 기자 ks@